



한국을 대표하는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출시와 함께 매출 1위로 올라선 '리니지 레드나이즈'(왼쪽)와 14일 출시를 앞둔 '리니지2 레볼루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넷마블게임즈

엔씨 리니지 vs 넷마블 리니지

〈리니지 레드나이즈〉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家的 형제들 '모바일 격돌'

레드나이즈, 양대 스토어 매출 1위
레볼루션도 내일부터 서비스 개시
사전예약자 300만 돌파 대박 예감

장수 인기 PC 온라인게임 '리니지'가 모바일에서도 일을 냈다. 원작게임 제작사인 엔씨소프트가 직접 개발한 국내 첫 모바일 리니지 게임 '리니지 레드나이즈'(이하 레드나이즈)가 국내 매출 순위 1위를 싹쓸이했다. 이제 관심은 14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과의 형제 대결로 쏠리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지난 8일 서비스를 시작한 레드나이즈는 12일 기준 국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앱스토어에서도 매출 순위 5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순항하고 있다. 이 게임은 한국은 물론 대만과 동남아 등 12개국에 동시 출시됐다.

레드나이즈는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된 뒤 엔씨소프트가 국내에 출시한 첫 번째 자체 개발 모바일게임으로 주목받았다. 원작 리니지의 주요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독창적으로 재해석했다

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레드나이즈가 매출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엔씨소프트는 '연매출 1조원 돌파' 목표에 청신호를 켜었다.

넷마블게임즈가 14일 선보일 레볼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레드나이즈로 PC 온라인게임 리니지 시리즈의 지적재산권(IP)파워를 입중한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 레볼루션은 리니지의 정식 후속작으로 큰 인기를 모은 PC 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IP를 활용한 초대형 모바일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원작을 잇는 광대한 오픈월드와 캐릭터, 공성전, 헬릭 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엔리얼엔진4로 구현

한 그래픽과 전 지역 동시접속 환경 등 PC 온라인게임 수준의 플레이를 제공한다. 이 게임은 출시 후 큰 인기를 끌며 곧바로 매출 상위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넷마블 게임즈의 콘텐츠라는 점과 사전예약자 수가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300만을 훌쩍 넘어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달 열린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도 시연 버전을 최초 공개하며,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이끌어냈다.

업계에선 레볼루션이 앞서 출시된 레드나이즈와 함께 매출 순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형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pnys@donga.com

2017년 '스타2 올스타전' 한국서 열린다

블리자드, WCS 진행 계획 발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스타크래프트2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WCS)에 대한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내년 WCS 전체 상금 규모는 200만 달러 이상이다. 글로벌 WCS 구조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순위 체계(WCS코리아·WCS서킷)로 나뉘어 운영한다. 먼저 WCS코리아는 가장 치열한 지역인 만큼 해당 체계에 속하는 공식대회 대다수가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블리자드는 아프리카TV와 함께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를 진행한다. GSL은 WCS코리아 순위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각 시즌에서 우승한 3명과 WCS코리아 포인트 상위 선수를 포함한 총 8명의 선수가 WCS글로벌파이널로 직행한다. 또 내년



중순엔 매우 특별한 올스타전인 'GSL vs the World'가 한국에서 열린다. 선수 선정 및 구조 등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 예정이다. WCS서킷 시스템은 간소화됐다. 중심 대회는 드림액에서 주최하는 총 4번의 챔피언십이다. 미국 오스틴과 스웨덴 예제핑, 스페인 발렌시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다. 각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WCS글로벌파이널에 진출한다. 해당 WCS 대회와 지역 챌린저 무대를 통해 WCS포인트를 획득한 상위 4명의 선수들에게도 WCS글로벌파이널 티켓이 주어진다. 김명근 기자

LoL 올스타전 '팀 아이스' 우승

〈유럽·중국·동남아〉

1만8000여 관객 방문 '인기 실감'

인기 PC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올해 마지막 축제인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16 LoL 올스타전'이 팀 아이스의 승리로 12일 마무리됐다. 지난 9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팔라우 산 조르디'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만8000여명의 관객이 모여 들었다. 올스타전은 전 세계 팬들의 투표로 뽑힌 인기 선수들이 출전해 다양한 게임 모드에서 대결을 펼치는 흥미 위주의 대회다. 선수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게임 자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고 팬들 역시 평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게임모드와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에 많은 박수를 보냈다.

올해 대회에선 한국과 북미,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지역으로 구성된 팀

파이어와 유럽과 중국, 동남아 지역이 속한 팀 아이스가 맞붙었다. 양 팀은 대회 내내 승패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승은 대회 4일차에 1대1 토너먼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 아이스가 차지했다. 최종스코어는 1100점 대 850점. 한국 선수들이 속한 팀 파이어는 3일차까지 우세를 점했으나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우승 팀 해커에 따라 팀 아이스는 소속 지역인 유럽, 중국, 동남아의 일반 게이머들에게 2017시즌 일정 기간 동안 'IP부스트'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스페인 지역자인 '엘 페리오디코'가 1명에 "e스포츠, 팔라우 산 조르디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대회를 소개하는 등 현지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겨울 공항패션은 '다운재킷' 쇼

스타들 다운재킷으로 '시크한 스타일링' 눈길

공항패션은 연예인 스타들의 일상복 패션인 '리얼 웨이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대 위, TV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스타들의 '솔직한 웃임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꾸미지 않은 듯 꾸민 스타들의 패션 덕에 공항은 또 다른 패션쇼의 장이 되기도 한다.

겨울 공항패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아웃도어 다운재킷이다. '따뜻한 멋'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연예인 스타들의 다운제품을 활용한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링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화려한 무대의상과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걸그룹들도 예외가 아니다. 걸그룹 스피카 멤버들은 레더 의상 등 몸매를 한껏 드러내는 평소 무대패션과 상반되는 청순한 공항패션으로 화제가 됐다. 공항에 나타난 스피카 멤버들은 화이트 패딩, 롱 카키 다운, 블랙진과 스니커즈를 매치했다. 멤버 중 양지원은 슬림한 블랙진과 블랙워커,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의 웨이츠필드 화이트 다운재킷을 착용해 청순 캐주얼룩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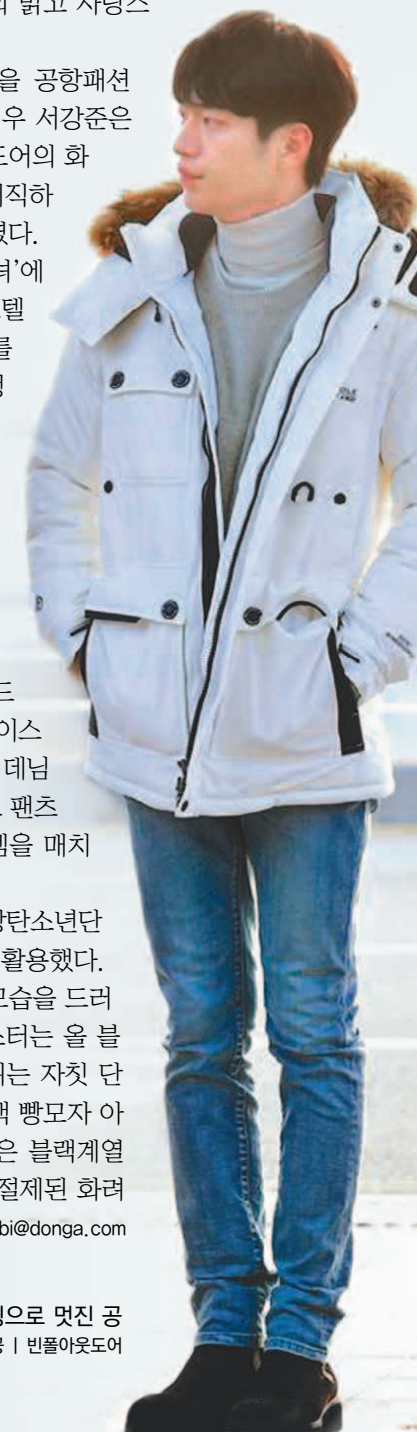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멤버 전소미는 와인색의 무스탕에 스니진, 스니커즈를 더해 성숙한 느낌을 더한 캐주얼룩을 선보이기도 했다. 여자친구의 예린도 화이트 다운을 입었다. 후드티 위에 화이트 다운을 매치해 여자친구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남자배우들도 다운재킷과 패딩을 공항패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배우 서강준은 터틀넥, 일자핏의 데님, 빈폴아웃도어의 화이트 안투라지 패딩을 매치해 베이직한 면서도 깔끔한 훈남 패션을 선보였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연남으로 열연한 공명은 파스텔 톤의 니트 폴라티에 차콜 롱코트를 매치했다. 순수한 느낌의 '대학생 룩'으로 제격이다. 후드가 달리고 포켓이 큼직한 캐주얼한 롱코트 덕에 183cm의 장신임에도 귀여운 느낌을 냈다.

남자 아이돌그룹도 있다. 인천공항에 나타난 몬스타엑스는 개성 넘치는 패딩재킷으로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다. 멤버들은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의 패딩재킷,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 위스의 운동화를 착용했다. 여기에 데님 재킷, 블랙 디스트로이드 진, 와이드 팬츠 등 각자의 개성이 엮보이는 아이템을 매치해 독특한 느낌을 냈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은 원론 패션과 포인트 아이템을 활용했다. MAMA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랍몬스터는 올 블랙패션으로 시크룩을 연출했다. 뷔는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패션에 검은색 뽕모자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줬다. 멤버 진은 블랙계열 이너웨어에 톤다운된 핑크코트로 절제된 화려함을 연출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빈폴아웃도어의 화이트 안투라지 패딩으로 멋진 공항패션을 연출한 배우 서강준. 사진제공 | 빈폴아웃도어



뉴맨
뉴맨

힘이 약하고, 중간에 시들어, 잘 안된다?!!

시도 때도 없이, 강한남자 뉴맨!!

아직도 '뉴맨'을 안하셨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착용 즉시 변하는 최고의 남자!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육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과와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드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착용 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에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 · 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특 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 허 명 경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 중국지사 T. 0433-286-5031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이하	주문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이상	주문 제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T. 1577-5579, 010-7636-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대로23 선일빌딩 6층 (주)케이앤케이 통신판매 허가 제2015-서울서초-1790호